**A close up of a sign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선교 활동 보고**

**'*우리가 당신을 뵈었나이다'***

66세인 마그다 크루즈는 평생에 허리케인 마리아 같이 파괴력이 강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카테고리 4에 속하는 이 허리케인은 섬나라인 푸에르토 리코를 처참하게 파괴했습니다.

많은 집들의 지붕이 날아가서,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나오거나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 헌금으로 지원받은 지역 사회 토지신탁인 '피데이코미소'가 해당 지역 곳곳에 안전한 지붕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덕에 마그다를 비롯한 많은 다른 가족들이 안전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 푸에르토리코의 끔찍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 헌금을 통해, 미국장로교 3개 사역부처(미국장로교 기아 프로그램, 인적자원 개발위원회, 재난 지원 프로그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손과 자원을 모았습니다.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미국장로교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빈곤 퇴치를 통한 지역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데이코미소는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지역사회가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피데이코미소의 '시민 참여 및 사회 개발' 디렉터인 마리올카 율리아 파체고가 말했습니다. "미국장로교가 최근 지원해준 보조금으로 열 네 가정의 지붕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물탱크를 설치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허리케인으로 학교 세 곳이 문을 닫아야 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학교 중 한 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환경 문제, 사회기반 시설, 청소년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폭력 예방, 풀뿌리 운동 조직화, 노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장로교 기아 프로그램'은 특히 피데이코미소가 G-8 본부와 커뮤니티 센터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물탱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이 시설은 향후 폭풍이 닥쳤을 때 주민들의 생존에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일 것입니다.

피데이코미소와의 협력은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이 마태복음 25장의 "*우리가 언제 당신을 뵈었나이까?*"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협력은 이 질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당신을 뵈었나이다*라고 답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일들 속에서 *예수님 당신을 뵈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당신을 뵈었습니다.*

이사야 58장에서 우리는 자연재해에 맞서 피난처를 제공하고, 가난에 맞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굶주림에 맞서 식량을 제공하는 등 상처를 회복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70년 넘게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 헌금은 전 세계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제시해왔습니다.

사순절 시기,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헌금에 관대하게 헌금해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모으면,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의 하나님, 당신의 회복하는 은혜와 능력이 압도적인 파괴를 복구하고 모든 피해를 되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은사를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우리를 도구로 삼아주십시오.***아멘**.